

기고

교사는 삼사일언(三思一言)해야



한병선 교육평론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심리육성회비) 안 가져 왔는데 뭐 하러 학교와, 빨리 꺼져’라고 소리를 쳤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 중에서)

신창원의 고백을 인용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교사의 심한 말 한마디가 한 개인에게 내적 증오를 키운 씨앗 역할을 한 경우를 말

하기 위해서다. 상담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부 고발자’는 어렸을 때 부모나 교사에게서 계속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하는 말이 된다. 무엇을 하든 실수를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떠오르면서 심리적으로 무기력 증에 빠진다. 스스로 내가 나를 고발하는 소리 탓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는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자존감이 약한 경우나, 내면이 취약한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모나 교사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고발하게 된다. 즉, 자신을 심리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자기 고문게임’을 하게 만든다. 상담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고문은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밖으로 향해야 할 분노가 안으로 향해 자신을 공격한다.

둘째, 자기 고문게임에 들어간 사람은 매

우 조급하게 행동한다. 타인의 것을 스스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삼킨다.

셋째, 판단할 능력이 없어 권위 있는 사람과 집단에 의존한다. 자신감도 없다. 사이버 종교에 빠지기도 한다.

넷째,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면세계는 항상 분열되어 있다. 정신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가 많으며 지쳐 보인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느 교사가 저능아로 낙인찍힌 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4학년 때 담임으로 부임한 알렉사 선생님은 달랐다.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른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했다. 그 결과, 선생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노력해서 처음으로 전 과목 A학점을 받았다.”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IQ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은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됐다. 만일 다른 선생님을 만났다면 나는 연구실의 교수가 아닌 청소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지능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는 로버트 스텐버그의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중에서)

이 경우는 교사의 긍정적인 강화가 저능아 취급을 받았던 로버트 스텐버그 교수를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만든 사례다. 저능아로 낙인 찍혔던 장본인이 저능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설 그 자체다.

물론 교사들에게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스스로 극복한 사례도 많다.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고교시절 회합어 문법교사 요제프 데켄하르트로부터 “너는 결코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라는 독설을 들었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다.

등복음을 내지 않았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마음 속의 악마를 키우게 만든 교사와 모든 교사가 ‘너는 안 돼’라고 했지만 긍정적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게 만든 교사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심리적 내부 고발’을 부추기는 교육과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교육의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교사는 ‘삼사일언(三思一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칼럼

반전(反轉)의 인생



김관수 천주교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장·신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은 반전(反轉) 사건이다. 요즘 드라마에서는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재미가 더해 가기도 한다. 그렇듯 예수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반전사건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당신의 여정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여정이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반전(反轉)의 인생’이다. 반전을 이루는 인생,

바로처럼 보이지만 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새롭게 되어가는 인생들 말이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2서 6장 8~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을 받는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 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즐거워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전(反轉)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비록 세속에서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속 안에서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로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느님의 지

혜로 살아가고 있는 빛과 생명의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꽃과 같이 화려하게 드러나고 칭찬받는 인생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뿌리와 같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실 화려한 꽃과 알찬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보이는 표징일 뿐이다. 즉, 꽃과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수단으로, 뿌리의 본 모습이요, 아름다움이며 충만함이다. 뿌리 없이 꽃은 피어날 수 없으며, 뿌리 없이 열매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뿌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자신의 화려한 꽃과 충만한 열매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실현시키기 위해 반전(反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4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잠언집 ‘바보가 바보들에게’에서는 아홉 가지 인생덕목(人生德目)이 소개되고 있다.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나오기에 세 번 생각하고 입을 열라’는 첫 번째 덕목, ‘웃은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으니 수입의 1%를 책 구입에 투자하라’는 두 번째 덕목,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노점상이 원하는 대로 주고서 사면 그에게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니,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짜지 말라’라는 세 번째 덕목,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고, 노인을 젊게 하며 젊은이를 동자(童子)로 만들어 주기에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는 네 번째 덕목 등을 비롯해 모두 아홉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도 아홉 번째 덕목이 나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라며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칠십년이 걸렸다”라는 추기경님의 고백, “가슴으로 하는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 안에 반전 인생이 환하게 그려진다.

社說

광양경제자유구역, 정부가 본 궤도 올려라

국토 서남부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오는 10월 지정 10년을 맞이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권과 가깝고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춰 국가적으로도 비중이 큰 광양자유구역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다.

지난 2003년 부산·진해, 인천과 함께 지정된 광양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도는 현재 48%에 불과하다. 광양자유구역은 광양 컨테이너부두, 광양제철과 연계 개발 기반이 견실하지만 정부 지원 부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양자유구역 개발이 더딘 것은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3880억 원, 부산·진해자유구역에 3064억 원이 지원됐지만 광양은 1189억 원에 그쳤다. 기반시설 지원 역시 광양은 11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산·진해는 3158억 원, 인천은 2323억 원에 이른다.

광양만의 부진도 경제자유구역의 발목을 잡았다. 연간 548만TEU의 처리 능력을 가진 광양항은 최근 3년 연속 200만TEU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부산항에 수출입 물동량이 집중되는 탓에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광양자유구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대안은 명료하다. 우선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려 주변지역 산업 전반에 ‘나수효과’를 불러와야 한다. 물동량이 쏠려 있는 부산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 체계 전반을 재조정해 광양항을 활성화시켜야만 자유구역도 더불어 살아날 수 있다.

해양플랜트와 정밀화학 기술연구를 지원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 석유화학 소재 및 기초소재 등 철강관련산업과 항만물류산업 중점 유치도 과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뒤따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판사마저 질척한 검·경의 부실한 수사

법원이 음주단속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안일한 수사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경찰이 피해 진술조서를 하위로 작성한 의혹이 짙고, 검찰도 치밀한 수사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0일 만취 운전 중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3월12일 새벽 0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광산 나들목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만 인정하고,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특수 공용물건 손손)는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추격하다가 한씨의 차량을 총격했으며, 당시 추격 한 경찰관 2명의 조사 시간이 다른데도 피의자가 답변한 모든 표현이 동일하게 작성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안이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치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검찰의 안이한 수사태도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경찰은 과연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며, 어떻게 조사가 다른 상황에서 피의자 답변이 같을 수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판결했다면 피의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검찰은 이를 두고 즉각 항소를 한다지만 사건의 진실 여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기고

광주 생태수목원 건립 왜 시급한가?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명과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는 녹색공간이 급격히 잠식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의 허파가 되고 있는 녹지공간은 거 세계 밀려드는 개발의 높은 파고를 막아주는 보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생활터전의 주변에 펼쳐진 수풀을 잘 지키고 가꾸어내는 일은 쾌적한 미래건설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육성·보존·전시하고

연구 및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생태 시설물의 하나가 수목원(樹木園)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수목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목을 발굴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희귀 수목을 수집 보존하여 식물 종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며, 시민들의 생태학습 자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물학적 경제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여 조성한 40여 개소의 수목원들이 시민들의 휴식 및 체험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그 수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난대림이 무성하게 자생하는 완도에 수목원이 조성되어 지역민들의 휴식과 환경생태 교육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서남부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광주에도 이미 수목원의 건립이 추진되었어야 할 상황이지만, 소요예산이나 부지확보 등

제한여건의 미성숙으로 지연되고 있다. 광주에 수목원이 건립된다면 다음 몇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립공원 무등산으로 집중되는 과도한 환경생태적 부하(負荷)를 일정 부분 분산·완화시킬 수 있다. 사실 광주시내에도 곳곳에 공원구역이 확보되고는 있지만, 자연공원이나 대규모 관광단지 같은 위락공간(遊樂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무등산 일원은 주말이면 무려 10만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등 사계절 내내 너무 많은 사람들로 붐살을 앓고 있다. 어등산 유원지의 신속한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수목원의 조성은 무등산에 너무 크게 짐 지워진 환경생태적 과부하 현상을 자연스레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과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생태환경을 탐구하는 좋은 자연학습의 전당이 될 수 있다. 수목원에 식재 보관 전시되어

있는 식물자원은 자연생태계를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생생한 학습자료인 것이다. 최적의 교육시설과 자료를 구비한 지역민의 생태학습 중심지로 집중 육성되어야 한다.

셋째, 산림전문가, 숲 해설사 등 산림분야 인력들의 현장실무능력 신장을 위한 훈련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도시나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나아가 기초적인 산림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수목원은 식물자원의 보존과 교육연구를 위해 우리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설립·육성해야 할 중요한 생태시설로 한 송이의 꽃, 한 그루 나무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이해하는 자연학습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과 활력의 재충전과 수목자원의 연구와 개발의 메카가 될 광주수목원 조성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초·중·고 수업 시작전 간단한 운동 상례화시키자

치매환자가 적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환자는 그 당사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자칫 한 가정의 살림을 거덜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가정적 피해를 주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운동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소한 운동이 치매환자를 줄일 수 있는 결과가 얼마 전 미국에서 밝혀졌다. 치매 환자가 적지 않은 우리로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미국에서는 이 연구결과가 나오자마자

미국 교육당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현재 켄터키주 등 상당수의 자치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전 학생들에게 매일 간단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입시부담이라는 이유로 체력 시험도 폐지한 지 오래됐고, 학교에서는 체육시간도 대폭 줄였거나 그 시간에 입시공부를 한다. 우리에게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나 할 수 있을듯하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뇌의 신경세포를 재생시킨다고 한다. 이는 기

역력과 사고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운동으로 커지기 때문이라는데 이 때문에 소위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최소 5년은 늦추고, 또한 발병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들 사이에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뇌세포에 영양과 혈액을 공급한다고 한다.

이제는 광주·전남북 모든 초중고에서는 체육시간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단 10분 또는 점심식사 후 5교시 시작 전 10분, 수업 종료 후 10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간단한 운동을 상례화시켜보자.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꼭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치타슬로(cittaslow)는 영어 슬로시티(slowcity)의 이탈리아식 표현이다. 속도의 시대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자며 1999년 이탈리아 소도시 ‘그레베인 키안티’의 시장 파올로 사투르니니가 중심이 돼 펼친다는 광우병으로 지구촌이 들쭉거릴때 ‘피렌체 불고기’는 죽었다’며 피렌체 스테이크 장례식을 치러 상소 문화도시 피렌체의 그늘에 묻혀 있던 인구 1만4000여명의 광범한 산촌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처럼 인구와 소득 감소,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내세울만한 관광지도 없었다.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던 사투르니니는 다른 마을처럼 도시화에서 길을 찾지 않고, 예스러운 분위기를 작은 마을에서 희망을 찾았다. 작은 마을만이 갖고 있는 아가자기 한 자연,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점을 지역의 상품으로 연출하기로 했다.

마을의 모든 정책과 행정을 슬로시티에 맞춰 외부 자본의 대형 슈퍼마켓 유입을 막고, 수제품 스파게티와 전통방식의 와

인생상을 권했다. 그 결과 ‘키안티 클라시코’라는 와인인 세계적인 명품이 됐고, 2년간 속성시진 햄 프로슈토(돼지 뒷다리)는 가수 엘튼 존까지 단골로 만들었다.

인구 1200명의 판자노마를 푸듯한 주민들이 대거 펼치는 광우병으로 지구촌이 들쭉거릴때 ‘피렌체 불고기’는 죽었다’며 피렌체 스테이크 장례식을 치러 상소 문화도시 피렌체의 그늘에 묻혀 있던 인구 1만4000여명의 광범한 산촌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처럼 인구와 소득 감소,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 내세울만한 관광지도 없었다.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던 사투르니니는 다른 마을처럼 도시화에서 길을 찾지 않고, 예스러운 분위기를 작은 마을에서 희망을 찾았다. 작은 마을만이 갖고 있는 아가자기 한 자연,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점을 지역의 상품으로 연출하기로 했다.

마을의 모든 정책과 행정을 슬로시티에 맞춰 외부 자본의 대형 슈퍼마켓 유입을 막고, 수제품 스파게티와 전통방식의 와

키안티의 청정한 먹거리를 부각시킨 것이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4개 마을 가운데 장흥 유치·장평이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했고, 신안 증도는 1년간 보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갯벌과 천일염이 자랑인 증도는 다리가 놓이면서 슬로시티의 매력을 잃었고, 장흥은 과도한 관광 상품화가 득이 됐다.

정일근의 ‘치타슬로’라는 시처럼 ‘달팽이와 함께 느릿느릿 사는 사람의 마을에/개별꽃 곁에 키 작은 서점을 내고 싶다’는 마을이 슬로시티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논설주간 申浩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